

三國遺事에 나타난 配偶者 選擇 및 性意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te Selection and Sex Consciousness Reflected in Samguk Yusa*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 수 백경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일명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ongju Campus, Dongguk Univ.

Professor : Baik, Kyung-Im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Kim, Il M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삼국유사에 나타난 배우자 선택의 특성 | 참고문헌 |
| III. 삼국유사에 나타난 성의식의 특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the mate selection and sex consciousness reflected in Samguk Yusa.

We set up the following two questions for aim of this study.

First, how are the real aspects and specific characters of mate selection reflected in Samguk Yusa?

Second, how are the real aspects and specific characters of sex consciousness reflected in Samguk Yus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ate selection reflected in Samguk Yusa discussed into two major domains, one is spouse conditions and the other is marriage form.

Men and Women are married at teenages, but the greater part of case is unidentified, so in order to approach this we need to analyse other historical documents. In men and women, standard of appearance and personality is difference. Analyzed case about appearance is a few, also we need to analyse other historical materials. More valued personality is wisdom in men, and in women more valued personality is virtue, brightness, graceful and mild.

Through in case of to overcome the cultural gabs, the society must be open in every area. The marriage form is diversity, examples, free marriage, a marriage of convenience type, etc. Especially in aspects remarriage of man and woman is free in every class.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 Sex consciousness reflected in Samguk Yusa discussed into three major domains, first is discussion about sex, second is premarital sexual behavior, third is extramarital. Through the case of discussion about sex is opened so there is not existence double blinded in sexual norms.

Also through the case of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extramarital, fidelity ideology does not yet come into existence.

I. 서론

배우자 선택과 성은 가족의 형성과정 중에서 매우 중시되어야 하는 요소이고, 실제 일상적인 삶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이다. 사람이 일생동안 갖게 되는 수 많은 선택의 기회 가운데 배우자 선택은 결혼을 이루기 위한 바로 전 단계로서 개인과 가족의 성공적 발달 여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제도로써의 결혼은 기존의 사회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제 권력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결혼에서의 경제적 교환 및 성적 자산의 교환문제, 재생산의 문제등과 같은 재산과 성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 이상으로 인류역사에서 불평등해 온 것 중의 하나가 性差別임을 전제로 하면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한국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영위되어 왔는가를 혼인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 박혜인(1988: 3)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배우자 선택과 성에 대한 의식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 또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유포, 확산시킴으로서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는가 하는 通時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역사란 '담론에 대한 담론'이라는 지적(Duby & Perrot, 1993: 6)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성은 비본질적이고 권력이 실천된 장으로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읽혀져 왔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Foucault, 1978; 1985; 1986)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배우자 선택 및 성의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찾아보았으나 전면

적으로 다룬 것은 없었고, 논문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그 편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최재석(1983)은 신라의 혼인이 同姓·近親婚이나 또는 異姓婚이나 하는 신라왕실의 혼인제를 고찰한 결과, 신라의 全時代를 통하여 異姓婚姻 보다는 同姓婚, 近親婚이 많은 시대였으며, 신라왕실에서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한 시대적 차이는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古代사회의 혼인형태 등을 다룬 연구(최재석, 1985)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시대의 혼인형태 및 倭와의 혼인관계 및 삼국간의 혼인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배우자 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시대의 왕실에서는 일부다처를 취한 사례가 적지 않고, 신라의 경우는 귀족이나 부유한 계층의 사람도 일부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이 古代社會에서의 혼인연구는 혼인연령, 혼인형태(妻의 數), 長期間의 孀留婦家婚의 혼인규칙을 다룬 결과(최재석, 1990; 박혜인, 1988) 등 가족제도와 의례적인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고대사 논총'과 '한국 고대사연구'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박혜현(1997)의 신라왕위 계승차원에서 外孫을 태자로 삼은 것을 외척세력의 발호로 보는 시각의 논문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배우자 선택 및 성의식에 대한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고려시대의 國師—然에 의해 편찬된 三國遺事를 기본 자료로 삼아 배우자 선택 및 성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다른 역사서에서는 누락된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국가인 古朝鮮의 기록부터 시작하여 여러 부족국가들과 伽倻의 역사를 복원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에서 일반백성에 이르는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중심으로 서술된 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대는 한국의 古代社會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삼국유사에 나타난 배우자 선택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삼국유사에 나타난 성의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분석은 李東勳 校勘으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3년에 낸 영인본과 한국 불교전서본(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을 대본으로 원전을 분석하여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의 두 영역에 기사가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류한다.

전술된 연구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중심의 학제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가정학, 사회학, 역사학, 여성학, 철학, 인류학, 국문학등 諸分野의 연구 성과 등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족과 한국의 古代社會에 대한 史的인 문헌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역사·사회맥락적 시각(최재석, 1990: 491-507)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배우자 선택 및 성의식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정치적 사건과는 달리 한 구절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여러곳

에 있기 때문이며 法制上的 條文과 실제로 행하여진 관행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實際의 것과 法制의 것은 서로 異質的이며 모순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하나의 記事나 制度에만 매달리는 경우 사실과 동떨어진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를들어 1991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가족법에서 재산의 남·녀 均분상속이라는 조문에 매달리게 되면, 지금의 시대는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면에서나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三國遺事』가 다루는 사회의 틀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성격은 法制나 規範이 아닌 그 가족이 속하고 있는 社會의 時代的인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歷史·社會脈絡의 方法이다.

II. 삼국유사에 나타난 배우자 선택의 특성

〈연구문제 1〉을 위해 삼국유사에 나타난 배우자 선택 관련 기사에 대한 항목을 내용분석하였다(표 1).

〈표 1〉 三國遺事 各篇別 配偶者選擇關係 記事 保有 條 一覽

篇名	條目名	該當條目數	篇當全體條目數	篇當比率
紀異2	古朝鮮, 樂浪國, 新羅始祖赫居世王, 第四脫解王, 智哲老王, 眞興王 神武大王·閻長·弓巴, 四十八景文大王, 眞聖女大王·居陀知, 金傳大王, 南扶餘·前百濟, 武王, 駕洛國記	13	59	22%
興法3		0	6	0%
塔像4	金官城婆娑石塔,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南月山,	3	31	10%
義解5	元曉不羈	1	14	7%
神呪6		0	3	0%
感通7	金現感虎	1	10	10%
避隱8		0	10	0%
孝善9		0	5	0%
계		18	138	13%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국유사 소재 부관계 기사는 총 18條目に 걸쳐있는데, 그 분포 상황을 보면 紀異篇에 13條目, 塔像篇에 3條目, 義解篇에 1條目, 感通篇에 1條目 등이고 興法, 神呪, 避隱, 孝善 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삼국유사 전체 138條目中 13%가량에 해당된다.

배우자 선택은 1. 배우자 선택의 조건 2. 결혼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특성을 논의하였다.

1. 배우자 선택의 조건

1) 연령

배우자의 연령은 다음 사례에 나타나 있다.

〈사례 1〉 두 성인의 나이가 열세살이 되자 오봉 원년 갑자(전 57)에 남자는 위에 올라 왕이 되고 이어 여자로서 왕후를 삼았다¹⁾.

〈사례 2〉 저는 아유타국 공주로서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 여섯입니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그의 배필로 삼게 하라²⁾.

〈사례 3〉 처녀는 나이가 열네댓 살이나 되었는데, 징이 드디어 사위로서의 예절을 치르고 바로 자기가 닦던 말에 그를 태우고 갔다³⁾.

〈사례 1〉~〈사례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는 13세가 한 사례, 여자는 13세~16세사이로 나타나 남녀 모두 10대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연령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은 결혼에서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인지 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결혼연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는 지속적인 후속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다.

2) 외모

다음은 외모에 대해 언급한 사례이다.

〈사례 1〉 비록 헝클어진 머리에 때묻은 옷을 입었으나 눈같이 흰 살결, 꽃같은 얼굴에 몸가짐이 어여쁘고 고왔다⁴⁾.

〈사례 2〉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계집아이는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⁵⁾.

배우자 선택시 여성에게는 '흰살결' 과 '꽃같은 얼굴', '자색이 고옴'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 '형용단정'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례는 많지 않아 이 역시 다른 자료와의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3) 인성

人性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 이제 천자가 이미 이땅에 내려왔으니 마땅히 德있는 女君을 찾아 배필을 정해야 하겠다⁶⁾.

〈사례 2〉 남해왕이 탈해가 지혜있는 사람인줄 알고 망공주로서 안해를 삼게하였다⁷⁾.

〈사례 3〉 따님이 매우 총명한 품이 보통이 아닌데 다행히 혼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녘이 재증매를 청하니 어떠하오⁸⁾.

〈사례 4〉 대왕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래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였으니 저희들의 딸들 중에 제일 압전한 자를 뽑아서 대궐로 들어 배필로 삼도록 하심을 청하옵니다⁹⁾.

〈사례 5〉 내가 나면서부터 자못 현명하여 미리 공주가 멀리서부터 올 것을 짐작하고 아래 신하들로부터 왕비를 들이라는 칭이 있었으나 기어코 듣지를 않았다. 이제 현숙한 그대가 절로 왔으매 이 몸으로서는

1) 「三國遺事」 권제1 紀異 제2 新羅始祖 赫居世王 條

2)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駕洛國記 條

3) 「三國遺事」 권제5 感通 제7 金現感虎 條

4) 「三國遺事」 권제5 感通 제7 金現感虎 條

5) 「三國遺事」 권제1 紀異2 新羅始祖 赫居世王 條

6) 「三國遺事」 권제1 紀異 제2 新羅始祖 赫居世王 條

7) 「三國遺事」 권제1 紀異 제2 第四脫解王 條

8) 「三國遺事」 권제5 感通 제7 金現感虎 條

9) 「三國遺事」 권제2 駕洛國記 條

커다란 행복이로다¹⁰⁾.

〈사례 6〉 왕이 이말을 듣고는 그가 현명함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지우면서 말하기를 '내게 딸이 둘 있는데 그대의 아내로 정해주기 바라다¹¹⁾.

〈사례 7〉 우리 백부되는 억력이 딸을 두었는데 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안살림을 맡을만 합니다.' 하였다. 태조가 그에게 장가를 드니 이가 바로 신성왕후 김씨이다¹²⁾.

〈사례 1〉~〈사례 7〉에 나타난 人性의 측면은 남성에게는 '지혜로움' '현명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여성에게는 '덕', '암전함' '충명함' '현숙함' '아름다움'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 바라는 '지혜'와 '현명함'의 덕목은 장래성과도 많은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유사 권제2 紀異 南夫餘 前百濟條의 '이 지방의 왕이 아들은 없고 다만 딸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그가 보통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그의 둘째딸로 안해를 삼게 하였다.'는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보통사람이 아님'(非常人)은 현명함, 지혜 등을 갖춘 것을 의미함으로써 남성의 인성은 장래성과 능력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출신지역, 신분, 가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출신지역, 신분, 가문 등의 요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사례 1〉 그의 어머니가 서울의 남지란 못쪽에 집을 짓고 홀어머니로 살더니 그 못의 룡과 상관하여 그를 낳았는 바 아명은 서동이고 재능과 도량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평소에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¹³⁾.

〈사례 2〉 古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곰과 호랑이가 한 굴에 살면서 언제나 환웅에게 기원하여 사람으로 화현 되기를 원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스런 썩 한심지

와 마를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의 몸을 얻을 것이다." 곰과 범은 그것을 받아먹고 햇빛을 꺼리기를 21일만에 곰은 여인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햇빛을 꺼리지 못해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은 더불어 혼인할 이가 없었으므로 한결같이 단수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이 이에 짐짓변하여 혼인하고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불렀다¹⁴⁾.

〈사례 3〉 저는 아유타국 공주로서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 여섯입니다. 그 나라의 신하로서 따라온 사람이 두명이었는데 그 이름은 신보와 조광이라 하고 그들의 아내 두사람의 이름은 모정과 모랑이라고 불렀다. 따로 노비가 도합 20여명이요, 가지고 온 각종 비단과 의복, 피륙과 금, 은, 주옥과 각종 구슬이며 장신구, 놀이기구 등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¹⁵⁾.

〈사례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동은 매우 미천하게 태어 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라 진평왕의 세째공주 선화는 그 신분상으로 볼 때 서동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서동은 선화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공주를 사모하게 되고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서동과 선화공주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고, 각 부문에서의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우선 국문학계에서는 薯童謠와 관련하여 서동의 神異의 탄생에 대한 신화적 해석 서동요의 성립 시기 등에 대

10) 「三國遺事」 권제2 駕洛國記 條

11)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四十八景文大王 條

12)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金傳大王 條

13) 「三國遺事」 권제3 紀異2 武王 條

14) 「三國遺事」 권제1 紀異2 古朝鮮檀君王儉 條

15)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駕洛國記 條

한 여러가지 견해가 대두 되었고(梁柱東, 1946: 金善祺, 1967: 史在東, 1971: 池憲英, 1974: 崔喆, 1986: 鄭尙均: 1984) 국사학계에서는 李丙燾(1952)가 武王條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서동이 東城王이라는 설을 제기하여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서동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서동의 실체에 따라 선화공주와의 관계가 규정되어 지기도 하였는데 盧重國(1986)은 薯重=武王=武康王=武廣王說을 취하면서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정략 결혼을 한 상황이라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야에서의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논의는 본 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배우자 선택에 한정해서 논의하면 출신지역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례 2〉에서 보듯이 환웅과 웅녀가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된 데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崔南善, 1926의 20여편)이 있어왔고 다음과 같은 학설이 대두되었다.

1) 삼국유사의 “熊得女身之說”에 따르는 “雄假化爲婚說”과 帝王韻記의 “令孫女飲藥之說”에 따르는 與檀樹神婚說을 두고 인류의 혼인과 신화의 혼인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설(김완섭, 1975: 35~55)
2) 태양신화의 환웅과 토데미즘의 웅녀가 결합하는 혼인으로서 곧 異質 두 系統이 혼인으로 결합한다는 설(金廷鶴, 1954: 273~298)
3) 산악신앙이나 神木신앙의 天神降臨說系와 生産에 관련된 靈神들에 대한 信仰의 地母神信仰系가 결합하는 혼인을 말하기도 하였다.

즉 환웅과 웅녀는 위에 살펴본 대표적 학설을 종합해 보더라도 신분과 배경이 너무 다른 한 쌍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3〉은 국제결혼의 형태를 보여준다. 허황옥의 출신지인 아유타국이 어딘가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보면 대개 현대 인도의 아요디아 지방으로 집약되는 듯 하다. 이는 李鍾琦의 현지 답사기¹⁶⁾에 이어 金秉模의 다년간의 인류학적 추적으로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⁷⁾. 특히 허황옥이 가락국에 도착했을 때 비단바지(綾袴)를 벗어 신령에게 예물로 준 다음 수로왕 앞으로 나아가는 대목은

한국 민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매우 흥미 있는 辟邪 행위¹⁸⁾로 설명하고 있음은 위의 說을 뒷받침하고 있는 매우 흥미있는 지적이다.

〈사례 1〉~〈사례 3〉에서 나타난 것은 모두 출신 지역, 신분과 가문 등에서의 이질적인 요인을 극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5) 교환

다음의 사례들은 배우자 선택시 교환되는 조건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례 1〉 제45대 신무대왕이 임금이 되기전에 의협스러운 인물 궁과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처치해 준다면 임금자리를 차지한뒤에는 너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겠다¹⁹⁾.

〈사례 2〉 이때야 노인이 나와 치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덕택으로 나의 목숨을 보전 하였으며 청컨대 내딸을 아내로 삼아

16) “前年에 李鍾琦씨(아동문학가)가 옛 아유타國인 현재의 印度 아요디아 지방을 직접 현지 답사하고 金海 首露王陵 출입문에 그려져 있는 물고기 形象과 古代 印度文化의 類緣性을 주장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李氏는 ‘古代 印度의 비단무역 전초 기지가 中國의 楊子江부근에 까지 진출해 있던 사실에 비추어 당시 印度가 비단과 鐵의 명산지였던 가락국과 交易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許王后의 인도 출신설은 틀림없는 事實이라고 주장했다.”(李勝羽, 1977: 261~262, 許慶會, 1994에서 재인용).

17) 한양대학교 문화 인류학과 김병모 교수는 「김수로왕비 허황옥」(1994)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 문제를 오랜 기간에 걸친 수차례의 답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

18) 여자가 바지를 입는 민족은 지구상에 많다. 중국의 漢族 여인들도 바지를 입는데 처녀·유부녀의 구별이 없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처녀들만 바지(kameel)위에 원피스(salwal)를 입다가. 初經이 지나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타이(sattai)라는 저고리에 파바다이(pavadai)라는 긴치마를 바꾸어 입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니까 허황옥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는 행위는 미혼녀의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하려는 통과 의례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9) 「三國遺事」 권제2 紀異 神武大王·閻長·弓巴條

주오²⁰⁾.

〈사례 3〉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정월 오기일 유신의 집앞에서 공을 차다가 일부러 춘추의 옷자락을 밟아 옷 끈을 뗐다. 유신이 칭하기를 '우리집에 들어가 꿰맬시다.' 하니 춘추공은 그 말대로 쫓았다. 유신이 아해를 시켜 꿰매 드리라고 하니 아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찮은 일로 귀공자 옆을 함부로 가겠나이까 하고 이를 사양하였다. 그제야 아지에게 명하였더니 춘추공이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그를 관계하여 이로부터 자주 내왕을 하게 되었다²¹⁾.

〈사례 1〉은 원수를 처치하는 조건으로, 〈사례 2〉는 목숨을 구해준 조건으로 배우자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3〉은 배우자 선택 조건을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유신의 家系는 김수로왕으로 시작되는 伽倻系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24대 신라 진흥왕의 대대적인 침공(562)으로 일부 왕족이 신라에 투항하고 그 후 26대 眞平王代에 신라에 완전병합(592년) 된다.

그러므로 가야계의 신라에서의 토착시기는 매우 日淺 함으로써 그 세력 기반을 견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아진다.

춘추-문희의 결합은 가야계가 신라의 왕위계승의 혈족으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춘추-문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金法敏은 30대 문무왕에 즉위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며 신라 始祖廟의 제사와 함께 외가 시조인 가야의 김수로왕의 제사도 함께 드린다²²⁾.

김유신은 누이동생 문희와 김춘추와의 혼사를 성사시킴으로써 정치적 세력 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은 김웅림(후에 48대 경문왕)의 예(삼국유사 권제2 48경문왕조)와 신라56대김부대왕과 고려조 왕건가와의 交叉婚에서도(삼국유사 권제2 김부대왕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결혼형태

배우자 선택시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의 형태를 보인다.

〈사례 1〉 원성왕 시대 화랑으로 김현이란 사람이 있어 밤이 깊은데도 혼자 쉬지않고 돌더니 한 처녀가 염불을 하면서 따라 들어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을 주게 되었다²³⁾.

〈사례 2〉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공주는 우연히 마음이 땡기고 좋았었기 때문에 따라오게 하여 남몰래 관계를 한 뒤에야 서동이라는 이름을 알고 동요가 맞는 것을 믿게 되었다²⁴⁾.

〈사례 1〉은 이성교제에 있어 자유연애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경우이고 〈사례 2〉도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의 형태를 나타내 준다. 이와같은 경우는 한결 음 더 나아가 재혼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자유재혼의 형태를 보여준다.

…관리가 법사를 대궐로 인도하여 옷을 갈아 입고 젖은 옷을 말리었는데 이 때문에 대궐에서 목게 되었다. 그후 공주가 태기가 있어 설총을 낳았다. …²⁵⁾.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혼자된 공주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또 다른 상황인 다음의 부부를 살펴보자.

…'남편이 죽었으니 나하고 같이 살지 않겠소?' … 하였더니 그는 … '좋소' …라고 하였다²⁶⁾.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의 재혼이 큰 흉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남편의 친구와 재혼하는 것을 부도덕 하게 여기는 의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과부가 된 공주의 재혼에도 아무 제약

20) 「三國遺事」 권제2 紀異 眞聖女大王·居陀知 條

21) 「三國遺事」 권제1 紀異2 太宗春秋公 條

22)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彌洛國記 참조.

23) 「三國遺事」 권제5 感通 條7 金現感虎 條

24)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武王 條

25) 「三國遺事」 권제4 義解 條5 元曉不羈 條

26) 「三國遺事」 권제5 感通 條7 廣德嚴藏 條

〈표 2〉 三國遺事 各篇別 性애 관련 記事 保有條 一覽

篇名	條目名	條目數	篇當條目數	篇當該當比率
紀異2	高句麗, 射琴匣, 智哲老王, 桃花女·鼻荊郎 善德王知機 三事, 太宗春秋公, 文武王法敏, 景德王·忠談師·表訓 大德, 處容郎望海寺, 金傳大王, 武王, 後百濟甄萱	11	36	31%
興法3	阿道基羅	1	6	17%
塔像4		0	31	0%
義解5		0	14	0%
神呪6		0	3	0%
感通7	金現感虎	1	10	10%
避隱8		0	10	0%
孝善9		0	5	0%
	계	13	138	9.4%

이 없다. 일반인도 아니고 신분에 따른 체면을 지켜야 하는 공주임에도 재혼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여자의 재혼문제에 대해 신분의 고하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III. 삼국유사에 나타난 성의식의 특성

〈연구문제 2〉에 따라 삼국유사에 나타난 性 관련 기사에 대한 항목을 내용 분석하였다(표 2).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性에 관한 기사는 기이편, 흥법편, 감통편의 3편에만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6편에서는 해당조목이 없어 삼국유사 전체 조목의 9.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기이편에 31%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 성이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記事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性에 대한 논의, 혼전임신에 관한 사례, 혼외 정사에 대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의 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과 관련된 실상을 제반 사례들로 정리하고 그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性에 대한 논의의 문제

성에 대한 논의는 시대별로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며, 그 차이가 바로 성의 도덕적 평가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성에 관한 도덕이라는 것은 대부분 오랜 세월이 걸쳐 전통과 관습을 통해 길들여져 왔으며 어떤 여건에서 조건화 된 것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세대' 간의 문제와 더불어 권력과 역할 관계에 가장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다.

다음의 기사를 예로 들어 보겠다.

〈사례 1〉 제 22대 지철로왕의 성은 김씨요, 이름은 지대로 또는 시도로 시호는 지증이니 시호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왕의 생식기 길이가 1척5촌이나 되매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없어 사람을 세방면으로 보내어 배필을 구하였다²⁷⁾.

〈사례 2〉 제 27대 덕만의 시호는 선덕여왕이니 성은 김씨요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나라를 다스린지 16년동안 그가 미리 알아맞힌

27) 「三國遺事」 권제1 紀異2 智哲老王 條

일이 모두 세가지나 있었다. -나중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어떻게 모란꽃과 개구리 사건을 그런줄 알았습니까? 하니 왕이 말하기를 '꽃을 그리면서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당나라 황제가 나의 혼자 지내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다. 개구리는 성 낸 풀을 하고 있어 군사의 모습이요 옥문이란 여자의 생식기다. 여자는 음이요 그 빛은 흰빛이니 흰빛은 곧 서쪽 방위다.

그러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필경 죽는 것이니 이래서 적병을 쉽게 잡을 줄 안 것이다.' 이때야 신하들은 모두 그 가혹한 지혜에 탄복하였다²⁸⁾.

〈사례 3〉 왕이 처음으로 즉위한 용삭신유(661)에 사비수 남쪽 바다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몸 길이가 73척이요 발길이가 6척이요 생식기 길이가 석자나 되었다²⁹⁾.

〈사례 4〉 왕의 생식기는 길이가 8촌으로 아들이 없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사랑부인으로 봉하였다. 다음 왕비는 만월부인이니 시호는 경수태후요 의충 각간의 딸이다³⁰⁾.

〈사례 1〉은 신라 22대 지철로왕의 생식기가 너무 커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워 신하들이 왕에게 맞는 배필을 구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손을 쓴다는 내용이고 〈사례 2〉는 선덕여왕과 신하들이 여자의 생식기와 남자의 생식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예언능력이 있는 여왕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례 3〉은 문무왕이 즉위한 후에 사비수 남쪽 바다에 떠오른 시체의 묘사인데 신장, 발 길이의 묘사 외에 여자의 생식기 길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사례 4〉는 〈사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의 신체적 특성을 논의할 때 생식기 길이를 거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 사례에서 나타나듯 성에 대

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특징을 말할 때 생식기 길이에 대한 언급이 신장이 얼마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 만큼 자연스럽게.

즉 성은 유별난 부분이 아니며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강하게 암시해 준다.

2. 혼전 성행동에 관한 사례

혼전 성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1〉 나는 본시 하백의 딸로써 이름은 유화인데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던 중 마침 웬 사나이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자칭하면서 나를 유인하여 웅신산 밑 압록강변에서 상관하고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래서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주몽이라 이름을 지었다³¹⁾.

〈사례 2〉 아도는 고구려 사람이요 그 어머니는 고도령이다. 정시년간(240-248)에 위나라 사람 아굴마가 명령을 받들고 사신으로 고구려에 왔다가 여자와 관계하고 돌아갔더니 이로 인하여 아도를 임신하게 되었다³²⁾.

〈사례 3〉 서울 만전 복리에 과부가 있어 남편도 없이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며 나이 열두살이 되어도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이름도 사동이라 하였다³³⁾.

〈사례 4〉 신라 풍속에 매년 2월달이 되면 초여덟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안 남녀들이 경쟁을 하여 흥륜사의 전각과 탑돌이를 하였다. 원성왕 시대에 화랑으로 김현이

28) 「三國遺事」 권제2 紀異 善德王知機三事 條

29) 「三國遺事」 권제2 紀異 文武王法敏 條

30) 「三國遺事」 권제2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條

31)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高句麗 條

32) 「三國遺事」 권제3 興法記3 阿道基羅 條

33) 「三國遺事」 권제4 義解記5 蛇福不言 條

란 사람이 있어 밤이 깊은데도 혼자 쉬지 않고 돌더니 한 처녀가 염불을 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을 주게 되었더니 탐돌이를 마치고 그는 처녀를 끌고 으스스한 곳에 들어가 상관을 하였다³⁴⁾.

〈사례 1〉은 해모수와 유화가 혼전 성행동으로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낳았다는 내용이고 〈사례 2〉는 신라의 불교를 전파한 아도를 그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고구려에 사신으로 온 아굴마와 관계하여 낳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사례 3〉은 과부가 남편없이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내용이고 〈사례 4〉는 신라 풍속인 탐돌이 풍속에서 화랑인 김현이 탐돌이 하면서 눈이 맞은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 내용이다.

〈사례 1〉-〈사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대의 혼전 성행동은 남·녀 모두에게 비교적 자유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혼전 성행동으로 임신을 한 후에도 결혼을 안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또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는 등 자유연애 결혼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性에 있어서 남성에 의해 타율적으로 형성된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절의 개념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婚外 情事에 관한 사례

〈사례 1〉 제 25대 사료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니 성은 김씨요 왕비는 기공공의 딸 지도부인이다.

사랑부 백성의 딸이 있어 자색이 곱고 아름다워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를 도화랑이라 하였다. 왕이 소문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들여 상관을 하려고 하니 여자가 말하기를 여자가 지킬 도리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으면서 어찌 다른데로 가리까? 왕이 장난으로 “남편이 없으면 될 수 있겠지?” 하니 여자가 좋다고 하였다³⁵⁾.

〈사례 2〉 왕이 하루는 그의 서 아우인 거득공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정승이 되어 모든 관리들을 고루 감독하고 온 나라일을 처리하라” 하니 거득공이 말하기를 “폐하가 만약 저 같은 자로 재상을 삼는다면 국내를 몰래 숨어다니면서 백성들의 부역하는 정형과 납세의 경중과 관리들의 청탁을 본 연후에 취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왕이 이를 승낙하였다.

무진주에 이르러 동리와 거리로 돌아 다니는데 고을의 관리인 안길이가 그를 異인으로 보고 자기집에 청해다가 가진 인정을 다하여 대접하였다. 밤이되어 안길이가 처첩 세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집에 묵고 계시는 거사 손님을 모시고 자는 자는 나와 죽을 때까지 살겠소” 하니 두 아내는 말하기를 “차라리 당신과 함께 못살았으면 못살았지 남과 같이 잘 수야 있겠소” 하는데 다른 한 아내가 “당신이 만약 죽을때 까지 함께 살기를 승낙한다면 곧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말을 들었다³⁶⁾.

〈사례 3〉 성덕왕 시대에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는 도중에 - 다시 이틀길을 간즉 또 바닷가에 정자가 있었다. 거기서 점심을 먹을 때 바다용이 돌연히 부인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엎어지고 자빠지다 발을 굴렀으나 어쩔줄을 몰랐다.

수로는 자색이 절세 미인이었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물을 지날적마다 여러번 귀신이나 영물들에게 붙잡혀 갔다³⁷⁾.

〈사례 4〉 처용의 아내가 너무 고와서 역신이 탐을 내어 밤이면 그 집에 가서 몰래 데리고 갔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

34) 「三國遺事」 권제5 感通계7 金現感虎 條

35) 「三國遺事」 권제1 紀異2 桃花女·鼻荊郎 條

36)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文武王 法敏 條

37) 「三國遺事」 권제21 紀異2 水路夫人 條

와서 자리속에 두사람이 누운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만 물러 나왔다.

동경 밝은 달에
밤 이슬히 놀러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들은 내해었고
들은 뉘해인고
본디 내해다 마는
빼앗는 걸 어찌리

이때에 역신이 처용의 앞에 정체를 나타 내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그와 상관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노하지 않으니³⁸⁾

〈사례 1〉은 진지왕이 남편이 있는 도화랑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상관을 하려고 하자 “여자가 지킬 도리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不事二夫)라 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왕이 “남편이 없으면 되겠는가”하니 여자가 “좋다”고 응답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나타난 不事二夫는 남편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선조 시대의 貞節의 개념과는 그 내용 상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2〉는 지방관리인 안길이가 자기의 처첩 3인을 불러 귀한 손님의 시중을 누가 들겠는가 하고 의견을 타진하면서 조건을 제시한다. 즉 우리집에 묵고 있는 손님을 모시고 차는 아내와는 끝까지 같이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두 아내는 차라리 당신 하고 안살면 안살았지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한 아내가 남편의 뜻에 따른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강요하지 않는 안길이의 태도와 또 차라리 당신하고 안 살더라도 딴 남자와 같이 잘 수 없다는 두 부인의 태도에서 성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3〉은 수로 부인의 자식이 절세 미인이라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도중, 깊은 산이

나 큰 물마다 붙잡혀 간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여러 차례의 혼외정사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아내가 붙들려 갈 때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다.

〈사례 4〉는 처용의 부인이 절세 미인이라 역신이 밤마다 자고 가는데 처용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들은 내 것이고 또 들은 누구 것인가’ 라는 상징적 노래를 부르며 노하지 않는다.

〈사례 3〉과 〈사례 4〉는 혼외정사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례 1〉과 〈사례 2〉처럼 직접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대상이 ‘귀신’ 또는 ‘영물’로 상징화 된다. 그러나 처녀가 임신했을 때 鬼胎라하여 그 대상을 귀신으로 상징화해서 ‘처녀로서의 임신’이 야기시키는 문제의 파장을 축소시킨 것과 같이 혼외정사 대상을 상징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

여기서 남편들의 태도가 더욱 주목된다. 아내의 허물을 탓해서 내치거나 버리지 않는다. 즉 이는 가부장제 성립 이후의 결혼에 있어서의 핵심적 의미가 있는 ‘배타적 성교’의 모습이 아니다. 아직 가부장제 사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또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녀의 권력관계가 종속적이기 보다는 평등한 사회임을 시사해 준다.

IV. 결론 및 논의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은 그 사회가 현재 어떤 구조와 문화속에 놓여 있는가를 판가름 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즉 배우자 선택과 성에 대한 담론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 왔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란 담론에 대한 또 하나의 담론이며 이것은 오늘의 ‘나’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38) 「三國遺事」 권제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條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삼국유사는 일정한 정보와 사실을 담은 한정된 자료의 성격을 벗어나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text)로 보았다. 텍스트는 폐쇄적, 물질적 속성을 지닌 자료, 문헌 혹은 작품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끊임없이 산출하는 열려진 방법론인 장으로서 이해 하였다.(Barthes, 1979: 71-81; 송효섭, 1993: 1에서 재인용)

우선 배우자 선택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결혼연령에서 남녀 모두 10대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사 분석시 연령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안되어 있는 사례가 더 많아서 결혼에서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인지 또는 보편화 되어 있는 결혼연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다분히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그 사회에서 어떤 연령을 성인의 기준으로 삼는 지 등에 관한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외모에서 여성은 '흰살결' '꽃같은' '자색이 고움' 을 기준으로 또 남성은 '형용단정'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 또한 연령과 마찬가지로 '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틀리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남성에게서 '지혜로움' '현명함' 등을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덕' '얌전함' '충명함' '현숙함'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 신분, 가문등이 비슷한 동질혼과 차이가 많이나는 이질혼등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특히 신분의 차이, 계층의 차이, 국제결혼 등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각 사례들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의 다원화가 수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다양성이나 다원성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지위나 계층상의 자유로운 이동도 의미한다는 Germino(1982)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결혼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목숨'에 대한 '은혜갚음'의 차원에서 결혼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결혼형태, 정치적 권력이나 지위등과 바꾸는 정략혼, 자유

연애를 통한 결혼의 형태 등을 통해 이 시대는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려있는 사회임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자유재혼의 형태나 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특징을 말할 때 생식기 길이에 대한 언급이 신장이 얼마이다라고 묘사하는 것 만큼 자연스럽다. 이것은 경주문화재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남자의 돌조각 性器들(70년대 말, 96년 발굴)이 사실적 기법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이나 국보 195호인 '목이 긴 항아리'에 장식된 성행위를 묘사한 토우 등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성을 대하고 있으며 인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는가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을 유별난 부분이 아니며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혼전 성행동으로 임신한 후에도 결혼을 안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는 등 성에 있어서 남성에 의해 타율적으로 형성된 여자들에게만 한정된 정절의 개념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외정사 등의 사례에서도 일방적으로 아내를 닦하지는 않는다. 이는 가부장제 성립 이후의 결혼에 있어서의 핵심적 의미가 있는 배타적 성교의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남성에 의해 여성의 성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 준다. 즉 여성의 정절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이기 보다는 定義의 문제이며 상황적 문제라는 인식(조은, 1997: 127)을 보여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녀의 권력관계도 종속적이기 보다 균형이 잡혀 있는 사회임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가 삼국유사라는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역시 한계점을 갖는다. 이 작업은 다른 사료들이나 개인문집 등의 분석을 통한 通時的인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이다.

■ 참고문헌

<분석자료>

- 1) 『三國遺事』, 李東歡 校勘(민족문화추진회 影印本)
- 2) 『三國遺事』, 韓國佛教全書本(韓國佛教全書6冊). 서울: 東國大出版部. 1984.
- 3) 權相老譯(1978). 『三國遺事』 서울: 동서문화사
- 4) 李家源譯(1991). 『三國遺事新譯』 서울: 太學社
- 5) 李丙燾譯(1990). 『三國遺事』 서울: 삼성출판사
- 6) 리상호譯(1990). 『北譯 三國遺事』 서울: 신서원
- 7) 李載浩譯(1975). 『三國遺事』 서울: 명지대 출판부

<단행본 및 논문류>

- 1) 김병모(1994). 김수로왕비. 허황옥. 서울: 조선일보사.
- 2) 김용욱(1991). 三國遺事引得. 서울: 통나무.
- 3) 김정학(1954). 단군신화와 토오테미즘. 역사학보 제 7집.
- 4) 노중국(1986). 삼국유사 무왕조의 재검토. 「한국 전통」 효성여대 전통문화 연구소.
- 5) 박해현(1997). 신라경덕왕대의 외척세력. 한국고대사회연구회편,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지배」 서울: 신서원

- 6) 박해인(1988).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7) 송효섭(1993). 삼국유사 실화와 기호학. 서울: 일조각.
- 8) 조 은(1997). 모성, 성, 신분제. 한국사회사학회 편, 「사회와 역사」(통권 제51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 9) 최재석(1983). 한국 가족 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10) _____(1990). 한국 고대 사회사 방법론. 서울: 일지사.
- 11) _____(1990). 한국 고대 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 12) 허경희(1994). 한국씨족실화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13) Duby & Perrot(1993). The Boud, Francois(ed.), A History of Women, Belknap Harvard.
- 14) Foucault, M.(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I. New York: Random House.
- 15) _____(1985). The History of Sexuality II. New York: Random House.
- 16) _____(1986). The History of Sexuality III. New York: Random House.
- 17) Germino, D.(1982).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Open Societ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